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全 春 雨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金 正 振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郵便)：156-02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非賣品)

## 회보 인덱스

2~5  
空士開校 50周年 特輯

- 名譽制度는 傳統으로 이어져야
- 배우고 익혀온 星武精神의 뜻
- 우리는 영원한 성부인 동아리

5  
德海經의 友情

6  
항공 우주시대의 공군의 위상(II)

7  
1999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8  
한강 에어쇼

9  
常 識

- Y2K의 의미는 무엇인가?
- 美國의 韓半島政策 二重性

10  
空士總同窓會 消息

11  
母軍·母校 短信

12  
馬事會 廣告

## 活性化 以前에 더 많은 關心을

歷史의 수레바퀴는 돌고돌아 비천하고 불미한 환경에서 母校가 開校한 지가 올해로서 半백년이 되는 뜻깊은 '99년이 되었습니다. 동창회 회원 모두와 함께 自祝하면서 젊음의 희망과 꿈을 키워 爲國忠情의 기상을 펼쳐계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하여 영광방위 수호의 使命 戰力으로 責任을 다하였으며 나름대로 立身하여 社會 各界에서 기여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공사동창회의 一員이 되었음을 榮光과 보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會長 全 春 雨  
· 26代 空士校長

공군 초창기의 모교는 공군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어 금년에 47期生 輩出과 더불어 同窓會員이 6,800여 명(연역 5,200여 명)이며 직업군인으로 10년~30년 이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젊은 時節부터 卞生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창회도 受難의 時代가 있었던 것으로 初期에 結成되었다가 다시 몇 년간의 중단이 이어 '80年末에 再결성되는 등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지만 士官學校란 特殊性 만큼이나 동창회도 남다른 特性이 있다고 믿고있고 또 사실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에서 선발된 생도는 四年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生死苦樂을 함께하며 初代 교장의 교훈처럼 一流 공중지휘관, 一流 기술자, 一流 神士가 되자는 모토하에 空士十訓이 말하듯 正直과 근면, 성실, 명예, 忠誠 등의 교훈은 서울 大方洞 星武로 이동 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표현이 다소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

을 잃은 小乘의 心理 作用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現實을 直觀하고 마음을 비우고 每事를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으로 진시와 반복보다는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생 집심으로 남을 위해 바르게 보고 고운 말을 하며 바른 행동으로 오늘의 자신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마음가짐으로써 오늘의 내가 있게끔 길러준 母校와 국가에 대한 報答과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창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난 一年간의 동창회를 돌아켜보면 개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 것으로 "쉽고 안위한 길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여 克己力을 익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영광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규사관의 表徵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轉役后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期生別 단합과 유대감화는 잘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총동창회의 결속은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自問해 보면 西洋文物이 여과 없이 도입되어 동양적인 忠孝思想은 消失되어가고, 物質의 崇拜은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처럼 不信時代에 살고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자기의 판단 기준과 지식만을 가지고 나만 옳고 남을 무시하는 성토로, 끝없는 탐욕과 마음의 갈등에서 이루어지 못한 自身의 성취도가 만족을 갖지 못한 것을 자신의 잘못은 생각 않고, 마치 過去의 自身들의 上官이나 혹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마음의 자제력

우리 星武會의 一員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람으로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가 主人임을 깨달아 우리들의 명예는 우리가 지켜야 하듯이 공사동창회는 회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관심과 참여로 實況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 명예를 지켜 주겠습니까?

특히 선배들의 값진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더 원숙하고 愛國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회생정신과 탐욕의 갈등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발자취에 책임을 지는 自己 성장과 一己一善의 實踐者가 되어 空士의 氣概를 더 높여 세계 최고의 동창회로 育成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오는 6월 10일 뜻깊은 開校 50주년을 맞아 동문 모두 다 함께 祝賀하며 會員 개개인의 健康과 家庭의 幸運을 빌고 母校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해 마지 않습니다.

## 새 역사의 아침 (개교 50주년을 맞으며)

하늘의 씨를 품고  
마음의 꽃을 피워 본다  
그대, 하늘 사랑 깊은 곳  
모슬포, 진해, 대방동에서  
여기 淸原벌까지 깃을 펼쳤다  
어제 같은 반세기  
글썩이는 당신의 눈매 속에서  
배추리는 자라서 보라매되니  
보아라  
불사조의 우람한 함성  
꿈을 안고 미소짓는  
오늘의 하늘이 더 높고 푸르구나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만 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조국과 하늘에 봉사되어야만 한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백년이 가고 천년이 온다고 해도  
저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수평선 위로  
새역사의 아침, 동행동행 부치는 소리  
그 소리가 하늘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朴 雄 鎮 (4기)  
詩人

# (特) 空士開校 50周年 (輯)

今年이 空士校 開校 50周年되는 해라니 참으로 歲月은 如 流水라.

그간 空士校는 鎭海에서 서울 大方洞으로, 또 忠北 鎭州로 移轉을 거듭하면서 偉容있고 堂堂한 오늘의 發展된 學校모습을 볼 때 참으로 感慨無量함을 禁할 수 없으며 그간 空士校 發展을 爲해 獻身한 모든 將兵들에게 깊은 謝意를 傳하고 싶다.

나는 空士校長으로 補職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것은 내가 다하지 못하는 일을 훌륭한 後輩들 養成함으로써 나의 希望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우리 空軍은 空士出身의 將校들에게 如何 發展된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同時에 나는 나 자신의 生活과 行動을 爲始하여 生徒 選拔과 教育, 그리고 教育의 環境 充實化 등에 關係 責任의 重大함을 痛感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쁨, 그리고 무거운 責任感은 나의 5년 9個月 여의 校長 在職 중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校長의 一舉手 一投足은 教育 바로 그것이다.”라는 信念하에 校長은 바로 生徒들에게 憧憬의 對象이 되어야 하며 늘 즐겁고 端正한 姿勢, 使命 完遂에 대한 끝없는 情熱, 言行一致, 즉 表裏 無損의 最高 教育이라에 對한 無言의 最高 教育이라에 對한 가슴 깊이 다짐하곤 하였다. 그만큼 空士校長 時節은 나의 젊은 情熱을 燃켜 줄은 잊을 수 없는 時期였으며 아마 나의 平生 가장 값진 奉仕였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校長 在職中 第6期生부터 11期生까지의 新入生을 選拔하였다. 選拔過程에서 가장 神經쓰인 것은, 첫째로 新入生의 思想 問題, 즉 訓練 중이나 任官 後 戰鬥機를 操縱 越北하는 事件이 發生치 않도록 豫防하는 問題이며, 둘째로 健全한 精神의 所有者, 즉 將次 教育訓練에 따라 軍人 精神이 透徹한 훌륭한 將校로 養成할 수 있는 可能性의 所有者, 셋째로 重要한 점은 修學能力이었다.

以上과 같은 着眼點으로 身體 檢査와 學力試驗의 結果 合格 豫定者가 決定되면 最後 面談時에는 校長도 直接 參與하여 受驗者들의 容貌과 인상을, 그리고 警察의 身元調査書를 參考로 그들의 家庭環境을 精密하고 嚴格히 審査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當時에는 내 個人 思想대로 審査하기에는 制限이 많았다.

이럴 때마다 恒時 느끼게 되는 것은 警察의 身元調査를 完備한 것으로 믿기에는 어려운 形便이고, 한편 믿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흐트러진 社會 風土에 接할 機會가 많고 利己主義에

기울어지기 쉬운 都市 出身보다는 淳朴한 農村 出身者를 나는 더 選好하는 편이었다.

思想 問題와 精神 問題는 前述한 바와 같으나 學力 問題는 一般으로 評해 都市 出身이 더 良好했다.

그 理由는 그 當時는 農村 高等學校에는 有能한 教師가 거의 없는 탓이라 判斷했으며 農村 出身者도 入校 後 優秀한 教育의 指導를 받는다면 그들의 素質, 才能을 充分히 發展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우리 空軍 歷史上 戰鬥機의 越北 事件이 全無한 것은 眞正 우리 空軍의 자랑이요, 또 士官學校 出身 將校 中에서 國內外 民間 大學에 進學하여 成功한 예가 많은 점 또한 자랑스럽다.

第5期 生徒가 卒業하던 해 (1957년)부터는 나의 平素 간직했던 所望대로 空士校 卒業生을 一般 民間 大學에 일단 聽講生으로 派遣할 수 있게 되어 각 學科에 따라 몇 學年에 編入시키는 것이 妥當한지 教授部의 各 課長을 포함한 幹部들과 수 삼 차례의 懇話會는 意見 交換을 하게 되었다.

그 結果 物理과 數學만은 基礎 實力 關係로 2學年, 其他 學科는 3學年에 編入시켜도 계속 修學하는데 支障이 없는 것으로

生을 2學年에 編入시키기로 方針을 變更하였다 한다.

나는 士官生徒에 對한 教育은 嚴格한 基準을 充實히 實踐함으로써 소기의 目的, 즉 士官으로서의 品格과 精神의 確立과 陶冶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 時節의 社會 風土를 考慮한다면 더욱 그러하였다. 當時 空士校에는 他軍 士官學校와 같이 “名譽制度”란 生徒의 行動規約이 있었으면 이는 美國 陸上과 海士의 制度를 한 點의 修訂도 없이 그대로 우리 空士校에서도 適用하고 있었다. 나는 이 名譽制度는 참으로 훌륭한 制度라 믿고 있었다.

전도를 해서는 안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서도 안된다는 등의 3가지 項目이지만 이보다 더 重要한 人間의 行動規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第4期 生徒 卒業 1個月 前에 뜻밖에도 名譽制度에 의한 多數生徒의 退校 問題로 苦悶한바 있었다.

事件의 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第4期 生徒의 一部가 循環 教育 中 慶北 慶山에 있는 通信 部隊에서 部隊 實務教育 (OJT)을 받을 때 市内 飲食店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發生한 器物 破損 事件이었다.

生徒 自身들의 事前 報告도 없었으니 生徒隊 隊長이나 校長인 나도 전혀 모르고 있던 차에 이 事故는 憲兵總司令部에 報告되고 이는 곧 空軍本部를 經유 事故 發生 한달 後에야 空士에 移管되어 왔다. 물론 이 事件은 名譽制度 審査委員會에 回附, 即刻 退校 處分으로 決定하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었지만 苦悶은 卒業을 1個月 앞두고 7명이나 되는 多數 生徒를 退校시킨다는 점에 對한 人間의 苦悶 때문이었다.

어느 날 空軍本部 姜호훈 人事 局長이 飛行機로 鎭海의 나를 訪問해 나의 決心을 묻기에 名譽制度의 適用은 그 數와 時期(卒業 1個月 前)에 左右되어서는 이 制度의 存在 價値가 없어져 生徒 教育의 根本이 흔들리는 結果가 되어 절대 再考할 餘地가 없음을 進했다.

名譽制度에 의한 한두 명의 退校 處分은 學年에 區別없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苦悶한 경우는 없었다. 一週日 이상 苦悶 끝에 해당 7名은 결국 退校 處分을 받았으며 이들의 退校 後 兵役 問題, 大學 進學 問題 등에 關係 最大限 도의주려고 努力한 것이 記憶난다.

退校 處分 決定 後日後 서울 汝矣島에 있는 空軍本部를 訪問, 金貞烈 總長게 申告한 때였다.

金 總長께서는 上述한 7名의 退校 處分件을 質問하시기에 나의 教育 方針과 名譽制度의 本質과 退校 處分 經緯에 關係 簡略하게 報告한바 金 總長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잘됐다! 士官生徒 教育은 그 래야 한다며 그동안 몇몇 國會議員들의 善處해 달라는 請託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生徒教育은 嚴格해야 하며 精銳主義로 나가야 함으로 大義를 위해 理解하여 달라고 說得한바 그들은 더 이상 請託은 없이 空軍은 生徒들을 그와 같이 教育하고 있으니 우리 空軍은 將次 期待해도 좋겠다고 오히려 稱讚해 주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金 總長께서는 申 校長은 앞으로는 退校 處分을 從前과 같이 教育하여 주기 바란다고 激勵의 말씀까지 해 주셨다.

그러나 그 동안 名譽制度에 의해 退校 處分된 生徒의 數는 나의 在職 동안 約 30名에 달했으나 이는 곧 校長의 不德한 탓이었다는 점에서 나는 無限한 기쁨과 幸福感을 맛보았다.

당시 陸軍大學에서 修學 중인 陸軍의 나의 옛날 同僚와 後輩 將校들의 傳言에 의하면 나에 대한 生徒들의 한결같은 評은 “우리 校長님은 무척 嚴格하시지만 우리 生徒들의 教育을 爲해서는 全 情熱을 경주하고 계시어 우리는 校長님을 무척 敬愛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生徒들의 評을 第3者를 통해 들을 때 生徒들이 나를 適切하고 充分히 理解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無限한 기쁨과 幸福感을 맛보았다.

記憶을 더듬어 於焉 40年前의 지난 일을 回顧하다 보니 말이야기도 많지만 이만 줄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끝으로, 空軍士官學校의 無窮한 發展을 衷心으로 祈願하면서 나의 回顧를 끝내려 한다.



申 尚 澈  
· 6代 空士校長

## 名譽制度는 傳統으로 이어져야

決定한다 있다. 한편 教授部 教官 중에는 陸士와 海士는 全科目을 一律으로 3學年에 編入시키는데 만약 空士만이 物理과 數學을 2學年에 編入시키는 境遇에는 空士의 威信과 體面에 關係 問題라 하여 憂慮를 表明한 教官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聽講生 派遣은 眞正한 修學(實力補強)이 目的이며 聽講修了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修學後 空士에 돌아오면 當당히 教授에서 後輩들을 위해 講義할 수 있는 實力을 갖추어야 한다. 實力없는 威信과 體面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校長으로서의 所信을 분명히 表明한바 同席했던 教授部 幹部들도 “至當한 決定”이라고 滿場一致로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다.

2年 後에는 陸士와 海士도 空士와 같이 物理과 數學만은 聽講





# 空士開校 50周年



空軍士官學校는 1996年 4月 당시 大統領께서 성무대대로 명명하면서부터 軍 内外로부터 성무대란 호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성무대에서 정규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영예의 공군장으로 임관된 장교들을 성무인이라 부르고 있다.

성무인들은 공사교에 입교한 날로부터 엄격한 군을 속에서 생도생활을 시작하면서 空士校訓과 十訓에 대한 感傷之情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空士教育理念和 生徒生活綱領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空士校訓과 十訓의 精神이 生徒들의 意識 속에 溶解된 정서가 성무정신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성무정신은 空士校訓과 十訓에서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포클랜드전쟁시 영국군의 최초전사자는 영국공군의 전투기 編隊長이었다. 전사한 편대장의 아버지와 젊은 미망인의 어린아들과 함께 텔레비전 회견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部下들에 앞장서서 전사하여 英國精神을 발휘한 것을 명예스럽다고 하였고, 젊은 미망인은 전투의 선두에서 전사했다는 명예를 아들이 성장하면 반드시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英國人들의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말로서 우리 國民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 “배우고 익혀온 星武精神의 뜻”

영국은 신분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신분 사회이다. 국가의 위난이 발발했을 때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분들이 출선 선두에서서 위난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존경을 받아오고 있고, 민주사회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이유라 하겠다. 영국군이 강한 것도 영국정신을 갖춘 指揮官이 앞장서서 위험한 전투에서 항상 선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독일의 한 戰略家は 영국군이 강한 것은 陸戰일 때는 指揮官이 앞장서고 海戰일 때는 기함이 선두에서 먼저 포문을 열고 空中戰에서는 編隊長이 선도하기 때문이라는 평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다. 영국 정신이 英國軍에 흐르고 있듯이 韓國軍에도 韓國精神이 흐르고 있다고 본다. 성무대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온 성무인들에게도 성무정신이 숨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무정신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生成되었으며, 성무정신의 참뜻을 되새겨보고 모든 성

무인들의 腦裏 속에 오래 기억되었으면 한다.

공사교는 1949年 1月 14日 경기도 김포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창설되어 동년 10月 1日 공군이 독립되면서 공군사관학교로 명칭이 개명되면서 새로운 精神을 다짐하게 되었다.

창설 당시 빈약했던 교육환경을 확장하면서 교과과목을 집중적으로 개편시켜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해오던 중 韓國戰爭이라는 민족수난의 국난사태로 발달하였다. 戰爭이란 국가 최대 위난을 당하여 공사교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혼란과 제약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전쟁은 공군독립에 따른 정부의 지원의지가 弱화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듯하였으나 오히려 戰時空軍의 任務가 막중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空軍力育成意志가 가일층 확고하게 되었다.

空士校는 전선의 변동에 따라서 이동전개를 거듭해 오던 중 교육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경남

으로 도약하는데 손색이 없는 요람지로 웅장한 모습을 과시하게 되었다.

空士校는 창설 이래 영공방위의 主力인 戰闘力과 戰闘支援力을 양성하는 요람지로 그 使命을 다하여 왔다. 1970年度에 접어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의 경쟁이 치열하게 展開되면서 우주항공시대 도래를 예단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공군에서는 우주항공시대를 先導해 나갈 우수인력 양성을 目標로 충북 정원에 새로운 성무대대를 건설하여 이동전개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全 潤 壽(5기)  
· 27代 空士校長

성무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언제든지 표출시킬 수 있는 성무인의 정신인 星武精神을 간직하고 있다. 성무정신은 공사교의 교육이념과 생도생활 강령이 담겨 있는 空士校訓과 十訓의 뜻에서 연유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士官生徒의 정신과 신념을 표현했다는 空士校歌의 정신도 담고 있다 하겠다. 空士校는 창설 초부터 忠勇勤儉과 空士十訓

智德勇을 空士校訓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校訓을 당시 우리나라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의 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智德勇이 空士校訓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새로 결정된 校訓인 智德勇에 관한 해설로서 먼저 智가 뜻하는 것은 진리를 터득코자 끊임 줄 모르는 태도로 학구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德이 뜻하는 것은 원만한 人間關係로 上敬下愛하며 倫理道德性을 함양시켜 높은 수준의 人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勇이 뜻하는 것은 과단성 있는 言行과 중단없는 실천意志로 使命을 果敢하게 실행한다는 것이다.

智德勇의 德目を 겸비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만한 인간성과 건전한 心身에서 솟아나는 용감성, 그리고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해설하였다. 우리나라 歷史에서 한결같이 추앙받고 있는 花郎道精神을 높이 받들어 後국의 간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966年度 당시 大統領이 空士校訓으로 채택하였으며 空士校를 성무대로 명명하였다.

그 후 정부의 한글전용화 정책에 따라 智德勇의 空士校訓을 한글로 풀이하여 制定된 것이 “배우고 익혀서라는 뜻은 論語에 學而時習이라는 말에서 연유되어 배우고 느끼며 感化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착함을 깨우치고 무엇을 배우고 닦아야 할 方向을 제시한 것이다.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뜻은 살신성인과 살신보국의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국가에 보답한다는 것과 국가가 요구시에는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다는 숭고한 軍人精神을 담고 있다. 따라서 空士理念과 目標이 일관되게 정승되어 왔다 하겠다. 이를 모든 성무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이 쌓아가야 할 空士歷史에서도 空士校訓과 十訓의 뜻이 담겨 있고 空士校의 전통과 명예가 살아 숨쉬는 성무정신으로 성무인들의 義理 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성무대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온 성무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空士校訓과 十訓의 뜻이 담겨 있는 성무정신을 깊이 인식하여 중요시해서 성무인들의 精神의 支柱가 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 모든 성무인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 성무정신으로 무장하여 國家發展과 國家保衛의 原動力이 되기를 期待한다.

진해지역으로 이동 전개하게 되었다. 진해기지에서 중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근의 장·단기 인력수급에 적극 대비하였다. 민족 최대의 비극인 韓國戰爭이 勝者도, 敗者도 없이 정전되었다.

전쟁으로 混亂스럽던 社會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황폐화되었던 국토도 복구되어 가고 있었다. 공사교도 戰時 때들이 生活에서 영구기지 건설의 必要性이 요구되었다.

진해 基地가 해군의 요람지로서 영구 基地로 결정된 해군사관학교와는 달리 공사교는 진해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특히 교육에 질적 향상을 얻기 위하여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는 데도 경제적, 시간적 制限도 많이 받게 했다.

이와 같은 制限事項을 감안하여 공사교는 서울 인근지역에서 이동 전개하는 方向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 1958年度로서는 초현대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사교 시설이 서울 영등포지역에 건설됨으로써 명실공히 현대공군

처럼 지켜오다가 11954年 당시 大統領이 친필로 내려주신 武勇이라는 휘호가 처음으로 교문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空士校의 教育目的이 智德體를 겸비한 정규사관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므로 점차 유능한 指揮官으로 성장해 가는데 精神의 지주가 되고 확고 부동한 信念으로 삼게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懸念이 대두되었다. 이미 校訓화되어 있던 武勇과 教育目的이었던 智德體 중에서 어느 한쪽을 校訓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意見이 개진되고 있어서 校訓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校訓의 검토 方向은 空士校의 教育理念과 教育目標에 부합되고 內容은 명쾌 간결하며 형식이 흐르지 않고 倫理的 體系를 갖추어야 한다는 基準이 제시되었다.

또한 指揮官 參謀들이 一方的으로 制定되어서도 안되며, 교체될 때마다 修正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期間 동안 심층 研究되었던 資料를 근거로 하여 교육관계관 연석회의에서

# (特) 空士開校 50周年 (輯)

개교 50주년에 즈음하여 원고 청탁을 받고 잠시 망설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역사의 주인공들이 벌써 7,000 명을 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주옥같은 원고야말로 회원들과 후진들에게 더욱 값진 산 역사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었다.

먼저 50이라는 숫자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인류 역사에 커다란 의미가 부여된 숫자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성 50년 하버드, 한 사람의 인격과 자질이 완숙한 단계로, 장년층으로 표현되며, 부부들에게는, 금혼식으로 축하하며 50년 전의 결혼식을 재현하는 뜻깊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반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의 기초를 삼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본 성서에는, 매 50주년을 모든 토지들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며, 노예와 종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며, 모든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라는 북스러운 숫자로 禧年 또는 元年으로 기념하는 뜻깊은 종교적인 복된 숫자이기도 하다. 본인은 개교 역사 기간 중에서 생도생활과, 교장재직으로 도합 6년을 공사 역사의 분당에도, 나머지 시간은 역사의 현장에서 다른 회원들처럼 나름대로 사관학교 출신의 명예와, 또 군과 국가발전의 임무를 담당하는 일에,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제한된 지면관계로 현역 시절의 역사는 접어두고, 교장으로서의 재임기간에 추진했던 학교발전 계획들을 회고하며 소감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1988년 1월, 취임시 출근길의 모교 정문통과 심경은 심금 교장이 통과하는 출근길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테러 용의자가 주지망을 뚫고 침입하는 인상을 주는 듯하는, 철저 차단이 정문 1킬로에 달하는 거리에 수없이 설치되어, 이를 피하여 들어가면서, 체복을 입은 본인도 몹시 살벌함을 느끼며, 현장에서 군 교육의 전담인 사관학교에서는 이러한 차단기의 제거 필요성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내 버스의 학교진입 허용과 사관학교를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좀더 가까운 학교가 되어야 하겠다는 등의, 생각과 결실을 하여 재임 초기의 학교발전 역사를 출발시켰다. 기간 중 본인의 출근시간은 현역시절에 지속해온 습관대로 일과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교장실에서 그날의 기도, 올바른 교장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도, 소정의 성서 낭독과 하루 일과를 사전 점검하며 언제나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일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나름대로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재직기간 중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교육의 3대 요소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의 자질 향상과 피교육자들

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풍명월의 도시, 교육의 도시인 정주지역으로 성무대가 이점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대 교장들과 성무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정이 말끔히 정리되어 교육환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교육환경분야에는 시급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선진국 교육환경과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넓은 들판의 환경을 가진 태릉의 육군사관학교와 끝없는 수림선의 환경을 가진 진해만의 해군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성무대의 교육환경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좁은 부지의 계곡을 통하여 보이는 것은 오직 변화무쌍한 제한된 민적의 하늘 뿐으로서 심심한 답답함을 느끼게 하며, 마치 종교인들의 수도생활 공간을 연상하게 되어, 자임에는 적절하나, 장차 향공을 제패해야 할 간부요원들의 심신 수련에는



郭 泳 達  
· 28代 空士校長

간밀한 접촉을 시도했다. 취임 당시에는 성무대 내부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교내에 대자보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피교육자인 생도들의 여론조사 결과 85% 이상이 음주, 흡연의 허용은 물론, 사복으로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며 일반대학에 버금가는 자유를 허용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계받았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사관학교에도 맥을 함께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본인은 전생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계받았다고 확인시키면서, 생도 여러분들은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반대학으로 퇴학자는 허용할 테니 임주일 내로 의사를 밝히고 학교를 떠나라고 하면서, 지금의 사관학교 방침과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랑스러운 성무대 문화유산으로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관학교 존립과 교육의 목적이라고 강변하였다.

은 계층의 국민들에게 사관학교를 연중 전면 개방한 결과, 학교 홍보는 물론 대민관계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장 2,500여 명을 대상으로 3박4일 간의 교정내 연수교육 실시 이후로는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우수한 자원이 사관학교 지원율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더욱 획기적인 결실은 여자 생도모집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관학교를 견학한 상당수의 여고생들로부터 언제든지 생도생활을 모집하는 기회를 허용하는가 하는 진지한 문의의 서신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찾아가는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의 3군사관학교에서 직접 확인은 물론, 기타 여자생도를 수용하는 나라들의 여자생도 수용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한 결과 확신감을 가지고, 여자생도 모집 정책을 입안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다행히도 본인이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층깊게 연구하고 준비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하여 3군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의 여성 보람에 생도 시절을 가능케 하여 선진 공군으로 일보 앞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개방적인 교육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공적은, 군의 사기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는가 하는 체류타도를 대비하여, 육군 서울의 수없이 많은 연습 파트너 가운데에서도 주로 올림픽 선수들을 상대로, 해군은 나름대로 원정연습으로 대비하였으나, 공사에 희망하는 연습 파트너가 전혀 없어서, 몇몇 고등학교 선수들을 상대로 연습하는 실정으로, 연습에 관한 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대표 생도들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허심탄회한 집단 면담을 실시한 결과, 연습 환경은 개선할 요책이 없으니, 타군 생도들 같은 지옥 같은 합숙 생활에서 벗어나, 일반 생도생활과 똑같은 외출, 외박 및 휴가를 맛보는 것이 선수들 모두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선수들의 숙련을 수용하되 체육대회 연습에 관하여는 생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총동원하여 자만에 빠져있는 타군생도를 능가하는 결과를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면서, 전체 성무대 가족이 총체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체전분위기와 대비책을 대폭 변경하였다. 따라서 대표 생도들은 갈망하던 외출, 외박 및 휴가를 정상대로 실시하는 관계로 연습은 주로 야유회이, 야간 연습이 주축이 되어, 막상 체전대회장에 서있는 공사 선수들의 허벅지 색깔은 여학생들의 그것처럼 희멀건한, 건강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웃음을 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게임이 시작된 이후의 공사

## 우리는 영원한 성무인 동아리

매우 제한된 공간으로서, 보다 넓은 무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긴급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계곡의 100만평의 부지 전체를 100% 교육환경으로 활용하여 넓고도 높게 또 멀리 보기 위하여, 성무봉 정상까지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과제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성무봉 정상까지의 정기적인 등반을 위한 등산로 개설과 생도들의 행글라이더 훈련을 위한 산정상을 연결하는 Lift를 설치하여 사관학교 상공전체까지를 활용하며 호연지기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잔여 전력단련장으로 개발하여 산악환경과 친화력을 갖도록 하면서, 교정에 사슴까지 방목하여 전원냄새가 물씬 나면서도 성무대 우주공간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발전하게 보이는 교육환경으로 발전시켰다. 교육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도서관에 방북계까지 불을 밝히게 하여, 매년 1~2편의 논문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용역 연구를 확대 양성화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켰고, 서울대 및 연세대, 고려대 등에 외대 강의를 확대하며,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고 내실있는 강의로 군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며, 능동적인 대외홍보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면서 재경지역의 교육환경과도

다행히 한 사람의 생도도 떠나지 않고 불만없이 사관학교의 전통을 지켜주었고, 오히려 성무대 교육의 안정된 본래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는 전라위원의 계기가 되어, 학교발전과 보다 생동감 있는 생도생활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일 중 첫번째 졸업행사는 너무도 빨리 다가오는 기분이었으나,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도, 지난 10여 년간을 대통령 지지 때문에, 생도 2학년부에서 시작되는 비행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생도교육을 정상적인 4년 교육과정으로의 환원하는 과제를 기필코 조속히 해결하는 문제였다. 다른 사관학교와 일반대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며, 4년 기간을 다 활용하여도 학위 수여를 위한 학점과 지휘관의 자질을 포함한 각종 인격 함양 교육이 산적해 있는 데도, 단순히 졸업시 조종사 자격을 부여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한, 조기 비행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졸업식 직후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한 결과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시며 비행교육은 교장과 총장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지시된 사항에 대한 취하 허락을 받아 사관학교 본연의 자율적인 교육위치로 환원시킨 일이다. 무도 당원하면서도 숙원하던 과제를 해결한 터이어서 매우 만족한 보람을 느낀 바도 있었다. 모

(5면에 계속)

# 德海經의 友情



丁海瑛(1기)  
· 평동자문위원

어느덧 공사교 창립 50주년을 맞아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하는 대목의 하나가 "德海經의 우정"이다. 여기서 덕은 사랑을 의미한다. 바다는 대자연이다. 하나가 "德(Bible)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덕해경의 뜻은 매우 인격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덕있는 사람이라야 대자연을 비롯한 우주만물을 피조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저들의 우정은 아름답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여 누구나 가게 마련이다. 대자연도, 성경도 영원한데 비하면 인생이 다그네질만큼 실감나게 한다.

실로 덕의 주인공인 李德浩 형은 1980년 3월 10일에 구미 수송공단 점무이사로 근무 중 휴먼히 걸터앉았으니 그제 이안이 병병하여 조위 완장을 두르고 그의 유골단지 안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기억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다.

그러나 동작구 삼도동에 살던 집에서 미망인 申貞善 여사와 3남(광무, 광운, 광석)이 겪은 심경이야 오죽했으랴!

어떤 19년 전의 일이든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다만 굵고 짧다면 짧게 살고 순직한 "德" 형의 기

질다운 종말이 큰 고통 없이 끝난 셈임을 위로 삼아 견디어 왔으리라.

그때 적어드린 비문을 동작동 국립묘지 장군묘역에 들릴 때마다(공사 1기생회에서 현충일 전일에 현화) 되새겨 보지만 신여사가 때때로 세 아들이 열마나 늘름하고 다재다능하게 이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지 그저 내 아들처럼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장남 : 대우중공업 이사, 차남 : 시정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3남 : 정영수와 전문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사103:17~18) \*비문에 새겨 있음.

모름지기 세 아들의 믿음이 대를 이어 흔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로 선친의 부환을 보는 듯 사죄전집이 눈부시다고 느끼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다.

실로 28년생인 李德浩 형과 30년생인 丁海瑛, 그리고 31년생인 李經哲 아

우님의 중간字를 묶어서 "德海經의 友情"을 기린 때는 "자유수호를 위한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6개월이 되던 1953년 5월의 일로 기억한다(은수저에 새겨서 나누어 가짐).

당시 德浩 형은 대관령 쪽대기에 주둔한 "미 공군 장거리통신중계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연일 출격하는 우리 전투조종사들의 出擊 空域 출입보고를 오산기지에 있는 TACC(Tactical Air Control Center)에 중계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어쩌다 주말에 강릉기지로 내려올 때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커 보이는 윤기있는 눈빛으로 미소까지 띄우던 절로 피로가 가시는 듯 우리들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풀렸다.

키는 171-173-169cm선이고 체중은 모두 65kg 내외였으리라고 기억하지만 "經" 아우님의 미소 또한 소탈하였으니 이래저래 사람의 빛은 흔치 않은 것이다.

더구나 강릉 장로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3총사로 전우들 간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도 알려져 있었다(현충일 목사 : 그 후 군중감을 역임하시고 바로 하와이로 이민 가심).

북한 하늘을 날아들면서 연일 출격수호를 늘려가던(海 : 50회, 經 : 34회) 위기상황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는 결국 좋은 응답을 받아온 셈이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흘러 '70년 1월말에 대령으로 예편한 "경철"이는(1남 3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98년에 목사님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생의 과녁을 제대로 맞춘 師표라 경하할 만이다.

필자 "해영"이는(1남 3녀) 현역대령으로 '71년 5월 30일에 장로가 되어 동년 10월 31일 예편 후 20년간 공직(부이사관)에 봉직하다가 전념퇴임하여 오늘을 맞았으니 만인이 있어도 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요.

다만 새 천년을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 "德海經의 友情"을 되새기며 저처럼 밝고 맑고 순수했던 애국충정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은 가고 대자연과 성경말씀은 그대로 남아

영구히 役事하시려니와 바다도 두고 가고 성경도 두고 갈 사람은 차례를 기다리되 "德" 형이 보여주시는 순직이나 순교로 이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으리라는 결론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왕하20:3)의 주인공인 히스기아왕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되뇌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사66:22)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22:21)

(4면에서 이음)

선수들은 운동장을 마음대로 누비며, 수적으로 엄청난 우세한 응원과, 울림직 선수들과의 연습으로 자만에 빠진 상대 선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주종목인 럭비, 축구는 물론 육상 경주까지 씩씩이 하여, 2년 연속 종합 우승의 승전보를 창조하는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례를 남겼다. 상대적으로 풍부할 물질적 지원과 수적으로 우세한 지원하에 총공세를 해온 대 육군은 2년 연속으로 준비했던 대규모 연회계획을 취소함은 물론, 향후 3사체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 정도로, 공사 생도들의 충직한 사기의 여파는 당시 관심있는 체육계 관계자들에게도 메가톤급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승패의 원인분석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어느덧 임기 중 두번째 졸업행사는 다가오고, 이번에는 너무나 박한 과제와 시련이 본인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1989년 10월 31일까지 3군사 관학교를 통합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동의서 및 희망하는 사관학교 편성표를 제출

하라는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휘관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의 지시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본인은 참모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단 통상대로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실질적으로 군 교유의 교육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군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재촉하는 상부 지시의 이행을 지연시켰다. 물론 상부의 압력은 지속적이고 가시적이어서, 특검단에서는 7명의 요원들이 내교하여, 육사와 해사는 이미 동의하였고, 대통령 지시니 사실상 각군의 동의도 필요없으나 요식행위의 동의서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냉정에도 서명에 불응하자, 이는 함평죄에 해당된다는 말을 남기고 상경하였으며, 당시 국방부장관도 동일 내용에 전화도 있어서 참모로 남강한 처지였으나, 본인은 함평의 의사는 추호도 없었고, 다만 현직 교장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실들을 사설대로 상부에 소상히 보고하고 충분한 각군의 의사를 개진한 후에도, 지시

대로 하라면 당연히 복종하겠다고 하면서, 지시사항의 불합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기부, 기무사 등에도 본인의 취지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문제 제기를 시간을 지연하다보니, 어느덧 졸업행사 시기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졸업식 행사직후 대통령과 한담, 장사로 이동하면서, 잠시 직접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대통령께서 먼저 "사관학교 통합에 문제가 있다면서"라고 하시며 그러면 없던 일로 하라는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고 너무도 감사하다. 구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하였으나 이미 끝난 일로 고개를 저으시며 자세한 내용을 이미 보고받으셨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물론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을 하셨으나, 한때는 심작으로 전 생도들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지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며, 나의 직분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나, 내 능력밖의 힘이 작용하여, 원안대로 통합된다면 미련없이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처지임을 밝힌 바도 있어서 마치 본인의 노력이 빛을 본 것

같아서 참으로, 커다란 과제를 해결한 출가분한 기분이었다. 재임 기간 중에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교장관사에서 성무교회까지 등산 겸, 새 책기도 겸, 부대순시로 시작되는 일과도 어느덧 2년이 다가오는 12월 20일 오후 16:00경, 생도들을 거울휴가에 떠나보내고, 조용히 밝아오는 새벽에, 학교 운영계획과 졸업행사를 구상하는 중 삼부전 화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 용인즉 1989년 12월 31일부로 군을 떠나라는 날벼락같은 전화내용이었다. 본인은 무슨 대형사고가 터진줄 알고 내 마음이 무어이며 자초지종을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상부 지시라고만 하고 변명 불가라는 내용이었다. 일평에도, 변명들도 자기 전의 날짜를 아는 법인데, 일군의 3성 장군인 현직 교장이 아무런 사유도 모르고 10일 내에 35년간 몸담았던 군을 갑자기 떠나라는 것은, 아무리 군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더구나 생도들의 휴가기간 중에 추방당하는 인상을 남긴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수배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들다.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으로 분통이 터져 책임을 치고 싶은 생각뿐이

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매일 아침 기도하던 교장 책상 앞에 꿇어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말조차 잃어버린 채 조용히 깊은 목숨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놈아! 시골 촌놈이 이곳에서 3성 장군까지 무사히 마쳤으면 됐지, 무슨 미련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하는 무언의 암시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스로 위로의 웃음을 지으면서, 이러한 암시를 주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문제는 나보다도 훨씬 충격이 클 본인의 내조자 내자를 실득하고 위로하여야 하는 걱정이 또 앞을 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빨리 솔직히 알리고 당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일단 전화를 걸어보니, 내자는 나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5년간 불편하게 살아오던 25평 주공아파트를 좀 편리한 곳으로 옮기려나 생도들의 휴가기간 중에 추방당하는 인상을 남긴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수배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들다.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으로 분통이 터져 책임을 치고 싶은 생각뿐이

(7면에 계속)



이진학(18기) · 감찰장(소장)

(전 호에서 이음)

3. 미래전쟁에서의 공군의 역할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국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공군은 정보 제압, 공중 및 우주 제압, 전략 공격, 지상 제압, 그리고 해상 제압과 같은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정보 제압(Counterinformation) 정보 제압은 정보 영역의 통제와 정보에 대한 정보 우세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정보 제압을 위한 노력의 초점은 적의 정보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적의 능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정보 제압은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거부하는 동시에 우군이 치명적인 손실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보 제압은 공세적 정보 제압과 방어적 정보 제압으로 구분된다.

공세적 정보 제압은 정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활동들로서, 적의 정보 능력을 파괴, 저하시키거나 혹은 적의 정보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세적 정보 제압의 예로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자료의 획득, 전환, 저장을 방해하거나 또는 정보의 전달을 저지하는 것과 심리전, 기만, 그리고 물리적 이거나 혹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다.

방어적 정보 제압은 우리의 정보, 정보 체계, 그리고 정보 작전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의 위협을 평가하여 우군의 취약성을 적정 수준까지 감소시킨다.

1991년 1월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사이에 있었던 걸프 전쟁은 미래에 수행될 전쟁 방식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이라크의 8년 전쟁을 치른 실전 경험이 있는 강력한 100만 명의 대군이 있었지만 다국적군의 정보 및 지휘 통제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공격에 정보망이 제압당하면서 그 위협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멸, 전쟁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다. "적군의 지휘 시설을 파괴하라. 정보가 지휘 계통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라. 적군의 통신망을 무력화시켜라. 적군의 후속 부대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라. 합동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라." 등의 중심 전투 및 공지 전투의 개념을 실천하기

# 항공 우주시대의 공군의 위상 (II)

위하여 공군력은 전통적인 지원 역할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렇듯 공군력은 적의 정보망 제압에 최우선적으로 운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 제압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체계, 작전 개념들에 대한 투자는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나. 공중 및 우주 제압(Counter Air and Space)

공중 및 우주 제압은 적의 전력을 파괴 내지는 무력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정도의 공중 및 우주 우세를 획득, 유지하고자 하는 작전들로 구성된다. 공중 및 우주 제압 작전의 주목표는 우군의 항공 우주 능력을 신장시키는 한편 적의 공중 및 우주 제압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방적인 공중 및 우주 제압은 노력의 집중과 요구되는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 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 수행 개념에 의거 단일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중앙 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 수행은 공군력의 놀라운 타격력과 기동력, 그리고 융통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3차 중동전쟁에서 그 운용의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공군은 공군사령관 호드(Mordecai Hod) 장군에 의해 전 공군력을 중앙 집중 통제로 운용하였다. 1차적으로 이집트 공군력을 최대한 시간 내에 집중 파괴하면서 소수의 항공력으로 시리아군의 공군력을 저지하고, 이집트군의 격멸 후 이라크, 시리아군에 주력을 투입한다는 전략 지침에 의거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라크군의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획득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걸프전 당시 우리는 공중 및 우주 우세가 결여되었던 이라크의 국가 운명이 어둡는가를 목격했다. F-117과 F-15에 의한 공중 타격이 있는 후에 이라크는 다국적군 지역의 상공 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라크는 공중 및 지상 상황에 대한 정보가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 다국적군은 항공기와 인공 위성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다. 전략 목표 공격(Strategic Attack)

전략 목표 공격은 적의 중심을 타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추구하는 작전들로 정의된다. 전략 목표 공격은 어느 한 행동이나 전투 또는 전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의 전체적인 노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전략 목표 공격은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 전선 제대부대의 불필요한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교전 없이도 적의 중심을 우선적으로 타격하여 군사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전략 공격 목표는 주로 적의 전쟁 지도부, 군사력, 그리고 국

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종종 주요 예비대나 정치적 의미가 큰 군부대, 우주 발사체 및 지원 요소 또는 전략 공격을 위한 전력 등과 같은 야전군에 대해서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시키기 위한 공격 목표들이다.

작전하만 운용한다면 전략 목표 공격은 항공 우주력을 운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인명과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휘관에게 결정적이고도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준다.

통상 전략 공격의 핵심 표적 체계 중 하나는 적의 지휘 통제 체계이다. 항공기나 유도탄을 사용하든 혹은 정보 공격을 하는 간에 적의 지휘 통제는 항상 전략 공격의 주 표적이 되어 왔다. 통신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적의 전쟁 지도부를 그의 국민과 야전군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전략적 마비나 무력화를 달성하는 필수적 단계이다.

걸프전 이후 수행된 Pin-Prick 작전(1995. 8. 30.)은 걸프전 때 보다 향상된 정보 수집 체계와 정확도가 향상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공군력 위주의 초정밀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지상전으로 확대하지 않게 하였다. 이 작전 수행을 계기로 공군력은 소규모의 전력이라도 적의 가장 취약적인 중심(核心: Center of Gravity)을 정확하게 파괴함으로써 정칙적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전력임이 입증되었다.

라. 지·해상 제압(Counterland/Countersea)

지상 제압의 주목표는 적 지상군을 파괴 및 무력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정도의 지상 제압 수준을 획득, 유지하는데 있다. 이처럼 항공 우주력을 이용하여 적의 지상군 작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군사력의 비대칭적 사용의 본질이며, 분장 초기 단계에 적의 진격을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작전을 성공시키는 핵심이다. 항공 우주력을 이용한 지상 제압 작전의 전형적인 형태는 항공 차단과 근접항공 지원이다.

해상 제압은 공군력의 기능의 해양으로 연장된 것이다. 해상 제압 기능은 해양 감시, 대잠전, 대잠수함 및 대항공전을 통한 해상 교통로 보호, 수역 기뢰 설치 등이다. 항공 우주력에 의한 해상 제압 작전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지며, 정보 제압, 공중 및 우주 제압, 지상 제압과 마찬가지로 그 목표는 해상군 지원 또는 독자적 주도적 작전을 통하여 해양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협소한 산악 지형과 3면이 해양으로 구성된 한반도 지형 여건은 지상전과 해상전에 공군력의 결정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 전투력은 산악 지형 작전 시 기동에 매우 불리한 반면 공군력은 지형의 특성에 관계없이

신속한 전력 투사 및 결정적 정밀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해양 전투력은 자체 기동력이 제한되며 공중 우세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중 우세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지상전과 해양전은 소모전으로 발전되어 우군의 피해와 인명의 손실을 가속화하게 된다.

4.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공군 구조

한국전쟁 당시 보잘것없는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던 한국 공군은 휴전 이후 F-86→F-5A/B→F-4D/E→F-5E/F→F-16→KCP(KF-16) 등의 항공기를 전력화 함으로써 명실공히 현대 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참모지에서 시작된 공군이고, 눈앞에 바로 적을 두고 있는 공군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대북 위주의 양적인 측면에서만 전력을 구축한 나머지 전투 지원 전력과 고성능 전투기는 부족하고 저성은 전투기가 다수인 비정상적인 구조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전력을 안보 상황에 맞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독자적인 전투 수행을 하기에는 아직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상태의 한국 공군력을 현대전 및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구조로 육성하기 위해 서 구조적 측면, 기술, 장비 측면에서 기술 집약형 구조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정보화군'을 선도하는 '항공 우주군'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가. 정보 수집 체계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미래전은 바로 정보화전이다. 이러한 정보화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항공 우주력의 정보 수집 체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정찰 위성에 대한 위력을 걸프전에서 실감한 각 국가는 군사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각국이 많은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심지어는 북한 당국까지도 최근에 위성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단순한 전술 정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RF-5A, RF-4C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신 기술의 정찰 장비나 수집 장비가 없어 그 성능이 극히 제한적이며, 전라 정보 수집이나 정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전 승패의 관건인 정보 분야가 미군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자체 기술 개발에 의해 인공 위성 능력을 발사하여 우주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한다면 우리에게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 조기 경보 체계

항공 우주력은 거리, 속도, 고도,

(7면에 계속)

(6면에서 이음)

전개 능력 및 융통성 등 그 고유  
의 특성 때문에 전투 가능성이  
있는 가장 적을 보다 원거리에서  
감시, 조기 경보 및 작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몇 개의  
현대전 사례(중동전, 걸프전 등)  
에서 본 바대로, 항공 우주력에  
의한 기술 효과가 거의 치명적이  
기 때문에 가장 적으로부터의 기  
습 방지가 국가 방위의 핵심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각국은 조기 경보 및 감시를  
위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 공군은 오  
로지 지상 레이더만으로 조기 경  
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  
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전  
장 환경에서는 공중 감시수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다. 전투(지원) 전력  
한반도 주변국 중 중국을 제외  
한 각국의 전력이 고성능 전투기가  
주력기로 되어 있으며, 차세대 신  
예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첨단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유 전투기  
(F-4J, F-15J 등)의 항공 전자  
장비 개발과 더불어 차세대 전투

기 F-2를 개발하고 있다. 전투기  
외에도 유도탄 개발 기술을 습득  
하여 언제든지 전략 유도탄 개발  
이 가능한 상태이며, 북한의 최  
근 위성 발사 주장과 함께 전구  
급 유도탄 방위를 위해 미국과  
함께 TMD(Theater Missile  
Defense) 체계 구축 계획에 참여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은 한때 항공 전력  
증강이 미진했으나, 최근 들어  
러시아, 일본 등 신에 항공 전력  
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억제'  
를 위한 수준까지 항공 전력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항공 전력  
의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라. 이상적인 방공력 구조  
21세기의 항공 우주 시대에 미  
래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군력은  
삼각형 형태의 전력 구조로 발전  
되어야 하며,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 수집  
체계의 핵심 수단들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및 전자전기, 공중  
급유기 등을 점진적으로 확보하  
여야만 현재의 제한적인 전쟁수  
행할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전력 구조를 뜻하는 것으  
로 전력 규모 자체는 전략 환경,  
전략 목표 및 위협에 따라 적정

규모를 판단하여 건설하고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가오는 21세기는 항공 우주력의  
시대가 될 것이며, 다양한 위협  
으로부터 국익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압, 공  
중 및 우주 제압, 전략 공격, 그  
리고 지·해상 제압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래전 양상에 비추어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한국 공군은 방공임무를  
위한 첨단 전투기, 전략 공격을  
위한 스텔스 및 정밀 유도 무기,  
공중급유기, 공중 조기 경보기,  
대공 제압을 위한 전자전기, 합  
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체계  
(JSTARS)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  
를 확보, 운용해야 한다.

이들 무기체계의 운용은 국가  
와 국민, 제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중 및 우주 무세 단성을 가능  
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

군력 현대화 계획을 지체없이 적  
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쟁이나 폭력 행  
사에 있어서는 항상 물리적 힘이  
강한 자, 즉 양적인 우세가 전쟁  
에서 이기는 것이 원칙(定則)  
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로 발  
전함으로써 정보 지식과 새로운  
체계의 무기가 도리어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이 되며, 이러한  
능력들이 전쟁을 억지하는 작  
용을 할 수 있다고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反戰爭」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  
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항공 우주력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지·해상군 전력에 도달  
할 수 없는 지역에 신속하고 적  
절한 대응 능력을 투사하는데 예  
다. 항공 우주력만이 거리, 속도,  
전개 능력, 융통성을 가지고 어  
는 지역에서는 생존성 있고 신  
속, 정화하게 교전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경교도 없이 국경을 침  
범해 오는 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무기를 장착하  
고 있는 항공력만이 적이 주요  
거점을 마련하기 이전에 저지할  
수 있다.

(5면에서 이음)

동부서주하는 뜰, 짙한 안락으로  
호된 시련이 한꺼번에 겹쳐서,  
35년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온  
군생활의 마지막 정리가, 시기와  
절차 방법이 모두 참으로 허무하  
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평생을 신앙으로 지켜  
주신 하나님 배경만 믿고, 전세를  
구하다 없으면 캄캄 천막이나 치  
고, 오랜만에 캄캄하는 기분으로  
살자며 농담을 하면서, 오늘날까  
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공색한 위로의 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잠시 후면 다가올 전  
역식을 연상해보니, 과거 어느 선  
배님들의 전역식 광경이 떠오르  
며, 못내 아쉬워하고, 눈물을 보이  
며 마치 추방당하는 인상을 보이  
기도한 기억이 있어서, 많은 후배

들에게 안타까운 어운을 남기는  
사라가 생각하며, 전역식만을 깨  
끗하고 산뜻하며 마련없이 가장  
만족한 모습으로 마감하기로 내  
자와 풀어서 뜻을 모았다. 전역식 행  
사는 본인의 요구대로 군복님의  
축도만 추가되었을 뿐 어느 전역  
식과 동일하였으나, 본인과 내자  
는 시중 미소를 잃지 아니하였으  
며, 교정 정문까지 전생도들의 도  
열을 받으며 떠날 때는 환호와 박  
수를 유도하며 만면에 웃음을 교  
정 가득히 남긴 채, 생도로 시작하  
여 교장을 끝으로 영원히 공군사  
관학교 교정을 미련없이 떠났다.

공사 교정을 떠나자 빨간 성관  
의 4성 장군의 승용차가 본인인  
선도하며 무조건 따라오라고 신  
호했다. 4성 장군은 유성원전과  
호텔에 예약을 해놓고, 35년간  
불철주야 수고하였으니 오늘은  
여기서 죽으면서 군의 체취를 온

전물로 맘껏 씻어버리고, 신사  
복 차림으로 서울에서 만나자는  
학교동창 장군님의 고마움은, 역  
시 35년간의 피로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한순간에 맘껏 가해지는  
듯한 100% 산소 소나기 같은 기  
분으로 마지막 장식을 만족하게  
마무리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무인들은  
재임기간 중에는 나름대로 주어  
진 여건 속에서 모교의 발전은  
물론 군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신  
성한 영공방위 임무 수행에 이룬  
새벽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또  
는 휴일도 휴가도 반납하면서, 개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 범위 내에  
서,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 뜻깊  
은 50주년의 주역들로 스스로 자  
위하고 보람을 느끼며, 또 자축하  
면서 보다 발전된 미래를 기대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50주년  
에 즈음하여!, 이 영광스러운 역

사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과 업  
적이 회미해 가는 먼저가신 동창  
회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빌면서, 그들의 생전  
의 모습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  
리가 군에서 체험했던 공사(公,  
私)와 희비(喜, 悲)의 역사들이  
후진들에게 보다 발전의 밑거름  
이 되도록 조언하고 협력하며, 사  
회에서도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  
는 역할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현  
역과 예비역 회원들이 보다 활발  
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느끼는 거리감과 소외감과 세대  
차이를 최소화하여, 무지개빛 이  
상이 아니라, 잠미빛 현실을 중요  
시하면서 "영원한 성무인들의 동  
아리"로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다짐하는 새로운 5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  
로 기원하는 바이다.

1999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本會 會則 第13條에 의거 1999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空士同門들께서는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參席하시어 本會 發展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日 時 : 1999年 6月 17日(木) 18:00
  - 2. 場 所 : 空軍會館
  - 3. 主要議題
    - ① 6次年度 會務報告
    - ② 7次年度 會長團 選出
  - 4. 其他事項
    - ① 參席한 同門들 간의 親交를 위한 간소한 자리 마련
    - ② 參席할 수 없는 任員과 期生會長은 必히 通報하여 주시기 바람.
- 불참시는 모든 것을 委任한 것으로 간주(02-823-1091)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 한강에어쇼

강철교의 강북방향에서 대통령을 모신 명수대를 향해 초저고도 초고속비행으로 진입하여 사열대 절벽 바로 앞에서 한강물 속에서 솟구치듯 급상승하면 한강변의 초 관중은 스틸과 흥분 속에 기립 박수를 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그날의 추억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리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빨간 마후라의 사나이들! 해마다 수백 명의 조종사들이 은빛 날개를 나란히 하여 한강을 날았던 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끝내는 이렇게 한강의 기적 한부분을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 후 군복을 벗은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민항기 조종사가 되었다.

오늘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세계 방방곡곡으로 날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비기 핵심 조종사가 그들이다. 하루에도 70여 개국, 130여 국제공항을 넘나들며 국제운송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참여하고 그들이 장하고 내 스스로 전투조종사였던 것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우리의 젖줄 한강과 강변의 88로, 그리고 여의도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잊지 못한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그렇게 떼지어 날았던 추억들을, 네이팜탄을 함께 쏟아 부었던 편대비행 요기로서, 편대장으로서는, 지휘관으로서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떼지었던 그 순간들, 그렇게 날기를 자랑하던 에어쇼 솔로비행, 최초의 팬텀기 보유국이 되어 주변국을 놀라게 한 어느 해의 시위비행, 88 서울 올림픽을 맞아 서울 상공에 수놓았던 흐린 무지개비행, 그 화려한 비행에 숨겨진 슬한 비화들, 이 강물 위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빨간 마후라들이 나누었던 한 편의 하늘의 서사시이다.

한강물을 가득히 안은 서해, 서해와 맞닿은 하늘, 그 원형 속에 한순간의 남아다웠던 한강의 비행 추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새겨 줄 것이다. 오늘따라 붉게 노을진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다.

중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강 속에 모이는 인파는 해를 더해 갈수록 그 수를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해 오랜 꿈이 이루어져 나는 에어쇼의 한 멤버가 되어 한강에 나타날 수 있었다.

1963년의 가을이니 35년 전의 일이다. 그때 공군의 주력기는 F-86F 세이퍼 제트였는데 지금까지도 전투조종사들이 잊지 못할 세기적 결정품이다.

그해 에어쇼 팀 구성은 예비를 포함해서 9대로 결정됐다. 아홉 명의 최고 비행사가 뽑혔다. 계급별로 엄정한 심사와 추천을 거쳐 팀이 이루어졌다. 중령을 편대장으로 한 9명 가운데 중위가 3명이었는데 우리는 나는 새처럼 비행기를 조정했던 나, 단독비행을 맡았다. 나머지 두 사람은 편대의 2번기와 8번기를 맡았다. 그 2번기는 조곤해 중위로 나와 사관학교 동기였는데 훗날 공군참모총장이 됐고, 제일 중요하게도 헬기사고로 순직했다.

우리는 8월과 9월, 2개월 간의 합숙훈련을 했다. 조종복과 조종화도 새로 맞췄다. 팀 이름을 블루드래곤(청룡)이라 하고 각자는 비행안전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단독비행은 배편비행, 회전롤, 수직상승롤, 수직강하롤 등으로 초저고도 고속비행으로 편대가 지나간 공간을 시간차로 메우며 특수 곡예비행을 스타일 있게 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계급이 낮고 비행 경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아 하는 우려가 지휘부에 있었지만 갑탄스럽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약속된 팀워크 속에서 편대비행과 단독비행을 해내었다. 에어쇼는 서로간의 말이 필요치 않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는 참으로 물론 제비처럼, 참공의 독수리처럼 한강의 물 위를, 철교 위를, 남산을 내려다보며 곡예비행을 했다. 어느 누가 이렇듯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겠는가! 에어쇼의 패스파인더로서 시작을 알리고 마지막 대미의 비행도 솔로인 내 몫이다. 마지막 곡예비행은 한



朴鍾權(9기)

· 한국군사학회이사, 연구위원

번비행, 곡예비행으로 이어졌다. 건국 축하비행은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덮어 편대군으로 질서정연하게 관망대의 시선 높이로 날아갔고 뒤이어 화려시범은 기종별로 무장을 달리해 파괴력과 정확도를 과시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비행으로 조종사들의 애국과 충성을 다짐케 하고, 큰 의미를 갖게 하는 연중의 가장 큰 행사였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꿈, 새처럼 날고파하는 꿈의 실현을 보여 줌으로써 내일의 훌륭한 조종사를 갖게 하려는 모습과 함께 보여 주기를 다했다.

나는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제트시대를 맞아 한강 에어쇼를 하던 때부터 매번 임무를 달리하면서 참가했고 새로운 기종이 도입되면 국민 앞에 성장한 공군의 모습을 과시했으며 해를 거듭할 때마다 그 행사의 규모도 커졌다.

공군본부에는 작전계획을 수립했고 작전사령부는 예하 비행단으로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각 비행단 단장은 작전명령에 따라 휘하 전력을 편대군으로 편성하여 직접 군장기가 되어 한강으로 진입했다.

비행단마다 뜬 수십 대의 항공기는 순식간에 수백 대의 비행군이 되어 사열대 앞을 정해진 T.O.T에 초를 다투며 순서대로 한강을 따라 사열대 앞을 날아가는 것이다. 우정의 편대비행이라 하여 주한 미 공군도 참여시켜 군사유대와 연합방위전력을 공고히 했다. 공중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편대장은 편대장대로, 요기는 요기대로 책임과 임무를 다했다.

10월 1일은 언제나 맑았다. 한 점 구름 없는 날이 되어 모두들 기쁘게 하였지만 때때로 구름이 있는 날에는 종종운이 얇게 깔렸고 하늘색은 맑고 높았다. 대통령을 모신 사열대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작동의 생육신 사당 부근의 명수대로 공중분열식은 통상 오후 2시 정각이었다.

수백 대의 축하편대비행이 지나가면 곧이어 한강 백사장에 군대지화력시범이 이루어졌다. 지금의 한강 철교 통풍관 넓게 깔려 있었던 모래사장

동에서 서로 서울의 중심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 한강을 바라보면서 강변 길을 달리노라면 20년, 30년도 더 된 지난날의 남다른 추억이 새롭다.

지금은 한강을 나란히 하여 강변 특이 도시고속도로와 평행한 '88 서울 올림픽 이전만 해도 강북의 특성이 아닐까듯이 한강물의 범람을 막는 폭으로 김포반도의 어귀까지 폭방길로 길게 이어졌다.

여름에는 여객선 사이 사이에서 자란 옥수수가 해바라기 키만큼 자란 모습이 시원한 감바람속에서 인상적이었다.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이 오면 까꾸지도 않았지만 피엠펙의 강변 따라 흰 침춘한 코스모스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변의 정서를 더해 갖고 인적이 드문 하구는 쾀어나 목가적이었다.

전투조종사들은 6·25 때 최초의 출격을 여의도 비행장에서 했다. 연락기에 소영폭탄을 싣고 서울로 진격해 오는 인민군 탱크에 손으로 폭탄을 던졌었다.

그런 대한의 공군은 세월을 더해 가면서 높이 나는 꿈을 이 여의도와 한강의 모래 위에서 일구어 드디어 팬텀의 공군으로, F-16 공군으로 성장해 갔다.

역사의 현장이었던 김환주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63빌딩으로 모습 바꿈을 했고, 주변의 백사장은 각양각색의 건물 숲으로 변했다.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섰으며 방송국, 은행가, 증권거래소, 아파트들이 뿔뿔히 들어섰다. 그나마 한동안 유지되어 있던 항공기 전시장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1960년대에 제트 전투기를 조종하는 페기찬 빨간 마후라였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 수준은 최초로 자동차 조립을 시도하려던 때이라 제트기를 탄다는 공지는 참으로 대단했으니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빈번한 비행 사고에도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다.

30년을 더 되게 그렇게 하늘을 날았다. 그 당시 조종사들은 매년 한강 백사장과 여의도 중심으로 공군의 날을 기리면서 서울 시민 앞에 항공력을 과시했는데 100만이 넘는 서울 시민이 한강변에 모여들었다. 그날의 행사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였는데 축하편대비행, 화려시



<常識 1>

# Y2K의 의미는 무엇인가?

Y2K는 Year 2000, 즉 2천년을 의미합니다. Y는 Year이고, K는 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을 Kilo라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1,000그램은 1kg, 1,000미터는 1km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Y2K가 왜 요즘 그렇게 아담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것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신용카드, 병원진단, 비행기 여행, 고층건물 관리, 세무서 업무, 슈퍼마켓 식품조달, 전기발전소 관리, 국가방위 등을 우리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2000년 1월 1일 0시를 1900년 1월 1일 0시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를 생활을 뺀 이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적인 관례로 예를 들면 1998년을 그냥 98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컴퓨터가 아직 처음 개발 단계에 있을 때 기억용량은 작고, 자료처리 능력이 느릴 때 자료를 풀이기 위해서 편의상 네 개의 숫자를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98년 하면 이것은 1998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다 묵시적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도 98년 하면 의례적으로 1998년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9년 다음의 00년을 2000년으로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00년 하면 무조건 1900년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들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굉장하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2000년으로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고 어떤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2000년을 맞이할 때 큰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돈은 넉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의 계산에 의하면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54억 달러, GM 회사가 5억 달러, City Bank가 6억 5천만 달러 등 전세계적으로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11개월 남아 있고 또 이런 때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론 컴퓨터 전문가들이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컴퓨터와 무관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Y2K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일반인들도 혼란을 피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Y2K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으로 어떤 피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 주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컴퓨터 전문가는 컴퓨터 주변에 있는 한 혼란과 피해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뉴욕시로 혼마에 가서 나무를 때고 태양열로 얻을 수 있는 전기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컴퓨터를 가장 일찍 도입했고, 일상적인 업무를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일년 간 정예군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만기일이 2000년으로 넘어 갑니다.

이것을 컴퓨터는 1900년에 만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된 때 큰 혼란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항공기 여행을 할 때 표를 구매하면 보통 그 표를 일년 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사면 19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증권시장에 유추얼펀드 같은 장기투자를 합니다. 이것을 컴퓨터는 2000년에 가서 1900년으로 계산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퇴원, 각종 검사장치, 약물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합니다. 항공기 운항관리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가방위망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혼란으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생깁니다. 슈퍼마켓의 식품공급이 떨어져서 식품구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등등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문제를 예측하고, 많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이며, 계속 완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진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매체는 태평여보를 하는 것과 같이 항상 Y2K의 진로 예측을 하고 이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지능이 없습니다. Y2K와 관련해서 미덥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이 일을 컴퓨터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문서에 의한 확인된 계약서 등을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 현 식(6기)  
· 공학 박사

<常識 2>

# 美國의 韓半島政策 二重性

미국은 脫冷戰時代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정책을 확대와 고착이라는 二重性 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 ■ 擴大戰略

美國이 가진 自由와 民主主義의 價値를 全世界에 전파시켜 완전한 平和構造를 구축한다는 명제에서出發한다.

여기에서 脫冷戰의 격랑 속에 유일한 共產體制로 남은 북한이 民主化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미 민주주의가 제 제도 위에 오른만큼 앞으로 북한의 金正日體制를 民主化시킨다면 南北關係는 원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북한에 대

한 외교승인과 경제기술 지원은 북한 민주화의 첫번째 포석으로서 그것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脫金正日化된 개방체제로 전환시키며 이 단계에서 市場經濟가 뿌리내리도록 해서 중국에는 民主主義體制로 進入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북경제 기술지원은 북한 공산체제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馬」이며 북한으로서 50억 달러에 주체조국을 팔아 먹게 하는 전략이다.

### ■ 固着戰略

이 전략은 안정된 세력구도를 공고화함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분단

고착을 설정하여 북한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속셈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베틀 끝에 몰린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확대전략이 기대하는 민주화와의 거리가 먼 김정일체제 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체제 접근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고착화 전략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비통일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상징적으로 한반도의 민주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민주한국과 공산북한을 공존시키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고마운

행령일 수는 없다. 미국은 미국 나름의 국익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탈냉전시대에서 통일정책을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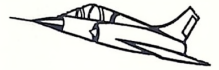
<편집실>







# 母軍 · 母校 短信



역대 참모총장 기념촬영



박춘택 참모총장과 김창규 전 참모총장이 사열을 받고 있다.

### ■ 공군 역대 참모총장 초청행사 개최

박춘택 참모총장은 지난 4월 29일(목) 오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김창규(제5대) 전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참모총장들을 초청, 강담회를 가졌다.

이번 초청행사는 공군 참군 50주년을 맞아 공군의 지난 역사를 돌아본 후 공군의 주요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역대 총장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공군의 현주소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의장행사에 이어 대회의실에서 공군 주요 추진업

무에 대한 브리핑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공군의 연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박춘택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군발전의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신 역대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날 공군이 지난 반세기의 연륜을 쌓은 장년 공군으로 발전하기까지 열정과 정성으로 이룩해 놓으신 훌륭한 전통과 업적들을 계승하여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에 가일층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창규 전 총장은 "올해는 공군 창군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후배 장병들 모두가 박춘택 총장을 정점으로 각자 맡은바 소임완수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고 말하고 "21세기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군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 박춘택 참모총장, 미국 정부 공로훈장 받아

박춘택 참모총장은 지난 3월 23일 미국 순방 중 미국 공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공로훈장(Legin of Merit)을 수여받았다.

라이언(Michael E. Ryan) 미 공군참모총장이 빌 클린턴 대통

령을 대신해 전수한 본 훈장은 박춘택 총장이 한·미 양국간 군사교류를 확대하여 연합 방위능력을 더욱 신장시키고 군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한·미 양국 공군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것으로서 미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상급의 훈격이다.

한편, 박춘택 총장은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현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기존의 군사우호 협력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사 연혁

연도	월 일	내 용
1949.	01. 14.	항공사관학교 발족(김포)
	02. 15.	초대 교장 김정렬 중령 취임
	06. 10.	제1기 사관 입교(개교 기념일)
	10. 01.	공군 창설, 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
1950.	10. 16.	9. 28. 수복과 함께 성남중학교를 임시 교사로 결정
	11. 09.	제1기 사관후보생 F-51, L-4 지상교육 수료
	12. 23.	성남중학교에서 대구 칠성국민학교로 이동
1951.	01. 25.	제주도 모슬포 기지로 이동
	05. 01.	진해 기지로 이동
1954.	05. 10.	4년제 교과과정 시행
	10. 20.	제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1955.	10. 01.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및 공포
1956.	04. 10.	최초로 이학사 수여(4기 사관)
1958.	12. 12.	서울 캠퍼스로 이전
1963.	02. 01.	전공 교육제도 도입
1966.	03. 25.	교훈 '智·德·體' 제정

연도	월 일	내 용
1966.	04. 11.	본교를 屋武淵로 명명
	12. 20.	'성무탑' 건립
1970.	02. 10.	교훈 '智·德·體'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개정
1976.	03. 27.	이학사와 공학사 학위 수여
1987.	03. 27.	이학사, 공학사, 문학사 학위 수여
	08. 01.	교장 계급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
1988.	09. 01.	학교 기구 개편(부교장제 신설)
1995.	02. 07.	비행교육과정 공인 항공조종사 면장 수여
1997.	02. 22.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사관생도 탄생
1999.	06. 10.	공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

## 공사 발전 약사

1. 공군사관학교의 태동('49. 6.~'51. 4.)
2. 새로운 시작 : 진해캠퍼스의 공군사관학교('51. 5.~'58. 11.)
3. 탄실한 성장 : 서울캠퍼스의 공군사관학교('58. 12.~'85. 12.)
4. 도약의 큰 날갯짓 : 청주캠퍼스의 공군사관학교('85. 12.~'99.)

(10면에서 이음)

### ■ 空士 1期生 謝恩會 開催

지난 5월 11일 정오에 空軍會館에서 空士 1期生에 生徒時節(1949. 6. 10.~1951. 8. 5.) 2년 동안에 모셨던 구대장, 중대장, 생도대장 등 선배님으로 생존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는 사은회를

가졌다. 생존하신 선배 6명 중 윤근섭 구대장은 미국에 이민가셨기 때문에 불참하고 박원석 교육대장, 이갑록 중대장, 김복규 구대장, 박두선 교장 부관, 최규근 교육대장 부관 등 5명이 참석했으며, 1기 사관은 23명이 참석하여 50년 전을 회고하면서 성대한 행사를 치렀다.

### ■ 李元甲(2기) 항공기술협회장 취임

李元甲(2기) 동문은 지난 2월 26일부로 사단법인 한국항공기술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 ■ 空士 1期生 앨범제작 배포

6. 25 동안으로 어려운 배움의 환경 중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익

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1949년 6월 10일 백명이 입교했지만 1951년 8월 5일 졸업은 83명이 했다. 때문에 추억이 담긴 졸업앨범을 못 만들어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월 5일 앨범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50년 전 젊은 시절의 생생한 추억을 남기게 되었다.



## 밝고 건강한 사회 - 한국마사회가 그려가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수익금의 대부분을  
마권세를 비롯한 교육세, 농특세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하여  
실직자, 수해자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사회,  
희망이 가득한 건강한 사회를 그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8 주요사회기여실적

-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 마권세 등(6,300억원) ● 축산발전기금(524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등(31억 7천만원) ● 새마을장학기금 및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지원 등(48억원)